

가정폭력노출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이 자아존중감과 내재/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효과*

박 지 현¹⁾

한남대학교 상담학과

최 지 영²⁾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노출아동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집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여러 문헌에서 자아존중감은 가정폭력노출아동에게 매우 중요한 심리적 특성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장 집단 상담을 기본 틀로 하여 외상의 집단 심리치료 접근을 하였고, DAP, CAS프로그램, Alessi와 Hearn의 통합적 개입 프로그램을 토대로 양혜원(2002)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쉼터거주 초등학교 아동 14명으로 실험집단 7명(남 3명, 여 4명), 통제집단 7명(남 3명, 여 4명)이다.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집된 자료는 Mann-Whitney U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실험집단 아동들은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자아존중감,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개인 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은 집단에서 모방의 효과와 공감 및 지지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두 사례를 연구 참여자들이 작성한 회기별 평가기록과 어머니 사후 질문지 및 연구자와 보조진행자의 평가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노출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의 핵심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가정폭력노출아동, 자아존중감, 집단상담, 내재화 문제, 외현화 문제

* 본 논문은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본 논문은 2016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논문으로 발표함.

1)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학과, 박사과정

2) 교신저자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E-mail: choi0122@hnu.kr)

I. 서 론

아동은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 사회적 성숙과 발달을 하게 되며 바람직한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 신뢰감, 애착, 사회화, 자아 개념, 성역할, 자아존중감 등을 발달시키게 된다(신민섭, 오경자, 홍강자, 김혜숙, 2004). 자녀는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부모의 평가를 내면화하여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부모의 자아존중감을 모방하게 되어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양숙경, 문혁준, 2012).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으로 인한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아동은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심리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심리 정서적 문제를 보이게 된다(양혜원, 전명희, 2001; 유채은, 2008).

가정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분노의 감정이 생길 때 이를 적절히 해소하지 못하여 내재화 또는 외현화의 반응을 나타내고 절망감, 낮은 자아존중감, 고립감, 무력감, 공포감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affe, Wolfe & Wilson, 1990; Sternberg, Lamb, Guterman, & Abbott, 2006). 이러한 이유로 가정폭력노출아동은 학교 및 사회적응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Dodge, 1980; Jaffe et al., 1990),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Mallah, 1997). 또한 가정폭력이라는 가족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또래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잘못된 대인관계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교사나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다(김향미, 2001).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 가정폭력노출경험은 청소년기 비행문제와 학교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되는 요인이 되며 집단 괴롭힘 가해와 피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 송아영, 한샘, 2010; 김재철, 최지영, 2011; 김효진, 2004; 원지영, 1999). 또한 어린 시절에 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성인이 되어서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반응을 자기 존재의 거부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한다(이희백, 2014). 물론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모두 이와 같은 문제를 갖는 것은 아니며, 많은 아동들이 적절하게 대처하며 성장하고 있다(박형원, 2003). 그러나 가정폭력노출의 부정적인 영향은 폭력노출 당시에만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적응과 대인관계문제에 지속적으로 영향(김재엽 등, 2010; 김효진, 2004)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조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가정폭력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김형모 등, 2007; 신혜섭, 2000; 홍성훈, 김희수, 2005)은 많지만 아동이 경험하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이해하거나 상담개입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김재엽, 조학래, 양혜원, 2003; 유채은, 2008). 외국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효과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Jaffe et al., 1990; Kaukinen, 2004; Wagar & Rodway, 1995). 반면 국내에서는 가정폭력노출아동에 대한 소수의 개입프로그램이 보고되었는데, 박형원(2003)의 ‘공격행동 감소 프로그램’, 유채은(2008)의 ‘적

응향상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 양혜원(2002)의 '적응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은 가정폭력노출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외현화 현상인 공격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전반적으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노출아동 중에서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내재화 및 외현화로 인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할 수 있다. 가정폭력노출아동의 내재화 및 외현화문제로 인한 우울, 불안, 공격성, 비행 등의 부정적 대처방법은 사회적응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Hughes, 1982) 이러한 원인으로부터 접근하는 집단프로그램의 개입이 필요하다.

가정폭력노출아동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아존중감은 가정폭력노출아동의 적응과 부적응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O'Keefe, 1998) 중요한 요인이다. 자아존중감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의 행동, 감정, 동기, 성취 및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친다(Coopersmith, 1967; Harter, 1990).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 자신을 얼마나 존경하는가,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를 의미한다(Rosenberg, 1979). 가족 내에서 갈등이나 학대가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게 된다. 이때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려면 낮은 자아존중감의 원인과 자기의 중요한 유능성 영역에 대한 확인, 정서적 지지와 사회적 인정, 성취, 대처 수준에서 개입이 있어야 한다(Santrock, 2007). 즉, 개인의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려면 자아존중감의 원인수준에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Harter, 1990).

한편 가정폭력은 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Mallah, 1997), 외상을 겪은 사람들은 외상당시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감정과 끊임없이 싸우게 된다. 우울증이나 약물사용과 같은 정신과적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냉소, 원한, 불신, 소외감, 미움, 복수심, 사기저하, 신념의 포기, 희망의 상실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외상을 극복하는 방법 중 과거를 현재와 분리시키는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는 외상경험을 생각하고 말 할 수 있는 일로 만드는 것으로,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집단과의 유대감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아존중감을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다(Allen,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집단프로그램은 가정폭력과 같은 외상을 경험한 개인을 치료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외상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고 공감할 때 정신작업을 하는 것이며 이러한 정신작업은 안정된 애착관계를 통해 가장 잘 이루어지고, 자기인식과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Fonagy, 1991). 즉, 외상을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국은 애착관계에서 안정감을 갖게 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자아존중감을 증진시켜 좀 더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갖게 한다(Fonagy & Target, 1997). 외상에 대한 집단심리치료 접근은 이처럼 신뢰관계 속에서 외상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안정애착의 맥락에서 정신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치료를 통해 기능을 호전시키고 삶의 질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Allen, 2010).

가정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들 중 적응유연적

인 집단과 부적응 집단을 구분 짓는 결정적 요인이 자아존중감이고, 자아존중감의 여러 영역 중 한 영역에서라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면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그 상황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자신의 세계에 집중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조미숙, 1999, 재인용)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노출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기성장 집단 상담과 외상에 대한 집단심리치료 접근을 적용한 집단프로그램의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은 가정폭력노출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은 가정폭력노출아동의 내재화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정폭력노출아동은 어떠한 심리·사회적 경험을 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가정폭력노출아동으로 A광역시와 B도시 소재 쉼터 거주 여성의 자녀들이다.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초등학교 14명을 대상으로

표 1. 실험집단 참여아동의 특징

	학년	성별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환경 특성	주요 문제(행동특성)
사례A	3	여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경험 있음 아동은 모로부터 회초리를 맞은 정도	위축, 우울, 주의집중문제
사례B	5	남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 심함 부로부터 폭력경험 심함	규칙위반, 공격행동, 주의산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때릴, 화나면 물건던지기
사례C	6	남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 심함 아동은 부로부터 폭력경험 있음	주의산만, 정서문제, 공격행동, 불안, 짜증
사례D	6	여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 심함 아동은 부로부터 폭력경험 심함	우울, 주의집중문제
사례E	5	여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 심함 아동은 부로부터 폭력경험 있음	공격행동
사례F	3	남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 심함 아동은 폭력경험 없음	주의산만, 정서문제, 공격행동, 불안, 짜증
사례G	2	여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 아동은 폭력경험 없음	위축,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말을 안 하고 울기

표 2. 통제집단 참여아동의 특징

	학년	성별	부모의 결혼상태	가정환경 특성	주요 문제(행동특성)
사례가	3	남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경험 있음 아동은 폭력경험 없음	주의산만, 말다툼, 손톱물기
사례나	4	여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경험 있음 아동은 부모부터 폭력경험 있음	위축, 우울, 불안
사례다	4	여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경험 있음 아동은 폭력경험 없음	불안, 우울, 위축, 싸움, 고함지르기
사례라	6	여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 심함 아동은 부모부터 폭력경험 심함	말다툼, 손톱물기, 과제중
사례마	5	남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 심함 아동은 부모부터 폭력경험 있음	불안, 우울, 위축, 주의집중문제, 규칙위반, 공격행동
사례바	6	여	이혼소송 진행 중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 심함 아동은 부모부터 폭력경험 있음	주의집중문제, 불안, 우울, 사회적 미성숙
사례사	6	남	이혼	부모 간 폭력목적 노출정도 심함 아동은 부모부터 폭력경험 심함	위축, 우울, 불안, 사회적 미성숙, 말을 안 하고 울기

하였으며 실험집단 7명, 통제집단 7명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에서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있다는 것은 아동이 부모에게 직접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부모 간에 이루어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험집단 7명의 특성은 표 1에, 통제집단 7명의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2. 연구절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전-사후 통제집단 설계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섭외한 쉼터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어머니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곳이다. 쉼터 담당자에게 프로그램의 취지와 효과성을 설명하고 기관장의 승인, 어머니 동의와 아동

의 동의를 얻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실험 집단에는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통제집단에는 어떠한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참여의사가 있는 아동 5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종료된 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기간은 2012년 3월부터 4월이며, 프로그램 실시전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다음날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진행 장소는 쉼터 내의 집단운영실이었고 총 12회기로 진행되었으며, 1회기 60분을 기준으로 6주 동안 주 2회씩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쉼터 거주자의 사회복지사 1명이 보조 진행자로 참여하였다. 프로그램을 진행한 연구자는 상담학 전공 석사과정으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대상

의 집단상담 경력 3년차이며 집단상담전문가 수련 및 전문상담사 수련시간을 포함하여 415 시간의 상담자 수련을 받았다. 보조 진행자는 연구가 진행되기 전 사전모임을 통해 프로그램의 특성과 진행과정을 이해하였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에서 보조진행자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 진행자인 연구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집단원을 돕기로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과정에서 집단 활동 방법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우며 결과물보다는 과정에 의의를 두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유덕인, 정태진, 1997). 집단프로그램의 운영 방법은 집단원들이 상호 신뢰하는 가운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행동을 돌봄, 이해, 수용, 지지 함으로서 치료적 기능들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이형득, 김성희, 설기문, 김창대, 김정희, 2002) 진행하였다.

3.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

이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노출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으로서, 첫 번째 단계로 문헌연구에서 가정폭력노출아동의 자아존중감의 문제와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 문제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개입모델로 자기성장 집단 상담(이형득, 1998)을 기본 틀로 하여 외상의 집단 심리치료접근(Allen, 2010)을 하였고, 지역사회 중심 집단프로그램인 DAP(Domestic Abuse Project of Minneapolis), CAS(Children's Aid Society of London and Middlesex)프로그램, Alessi와 Hearn의 통합적 개입 프로그램(1984)을 토대로 양혜원(2002)이 개

발한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가정폭력노출아동에게 집단활동이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Grusznski, Brink, & Edleson, 1988; Hughes, 1988; Wilson, Camaron, Jaffe, & Wolfe, 1989)를 근거로 자아존중감 향상에서 효과성을 보여준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오경준, 2000; 이은선, 2001; 이형득, 1998; 전규혁, 1999; 전승배, 2000)을 기본 구성 틀로 하였다.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자기이해, 자기수용, 자기개방이라는 세 가지 단계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도 자력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에 예방과 발달에 치중하는 접근으로 볼 수 있다(이형득, 1998).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발달과 예방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정폭력노출 경험에 대한 심리적 치료목적을 위해 외상의 집단 심리치료(Allen, 2010)접근을 함께 적용하였다. 집단 심리치료의 핵심은 신뢰관계 속에서 외상경험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다(Allen, 2010). 그러므로 자기성장 집단상담의 기본틀인 자기이해와 자기수용, 자기개방 후 집단심리치료 접근을 통해 참여아동이 상담자와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폭력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집단 치료의 집단원들이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보편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Yalom, 1970). 이처럼 폭력경험에 대한 개방이 동질집단에서 이루어질 때 개방의 두려움을 완충해주며 가정폭력 경험으로 생긴 수치심과 고립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Allen, 2010).

이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과 양혜원

(2002)의 프로그램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첫째, 양혜원(2002)의 프로그램은 8회기로 구성되었으나 이 연구의 프로그램에서는 가정폭력경험을 노출하기 위한 정서적 연습과 집단의 역동성을 준비하기 위하여 12회기로 수정하여 구성하였다. 둘째, 양혜원(2002)의 프로그램은 매 회기 도입부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연구의 프로그램은 그러한 활동과 함께 도입부에 손상된 정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기이해 회기를 구성하여 정서능력향상에 관한 활동을 강화하였다. 셋째, 양혜원(2002)의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이해 회기를 구성하지 않고 바로 가족탐색으로 진행되며 다음 회기는 가정폭력을 다루게 되는데 가정폭력 관련 외국비디오를 보며 가정폭력에 대하여 교육적인 방법으로 진행된다. 반면 이 연구의 프로그램은 자기이해의 작업을 진행한 후 가족에 대한 탐색을 하고 국내동화를 사용하여 주인공에게 폭력을 당한 강아지 이야기를 통해 폭력에 대한 아동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왔다. 그러한 작업을 한 후 다음 회기인 중반부에 외상의 집단 심리치료접근을 적용하여 집단원과 상담자가 충분한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에 폭력경험을 노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양혜원(2002)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동의 전반적 적응향상에 있으나 이 연구의 프로그램은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치료적 차원에 더 목적을 두고 자아존중감과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즉, 양혜원(2002) 프로그램이 전반적 적응을 목적으로 도움요청 교육, 분노감정 다루기, 당당한 행동교육으로 진행되어 컴퓨터 퇴소 후 아동의 전반적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다르

게 이 프로그램에서는 자기성장 집단상담에 근거하여 자신의 자원을 찾고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하고 자신을 수용하여 세상의 주인공으로 나아가도록 구성하였다. 다섯째, 양혜원(2002)은 컴퓨터아동들에게 프로그램구성에 관한 요구분석을 하지 않았으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컴퓨터이용 어머니와 아동에게 프로그램에 관한 요구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프로그램 개발에서 양혜원(2002)의 프로그램과 이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을 비교한 내용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프로그램을 상담관련 전공교수 1인과 상담관련 전공교수이며 집단상담 전문가 1인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통해 수정하였다. 수정된 프로그램은 상담관련 박사과정 2인, 석사과정 3인의 검토를 거쳐 안전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일반적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은 자아존중감이 낮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원인에 대한 이해 없이 자아존중감 척도상에서 단지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 연구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은 가정폭력노출아동을 대상으로 집단 내에서 가정폭력의 문제를 개방하고 중요한 주제로 다룸으로써 낮은 자아존중감의 원인에 접근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자아존중감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왜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었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찾고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Santrock, 2007).

따라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가정폭력노출경험이 있는 아이들끼리 집단을 구성하여 동질

표 3. 양혜원(2002)의 프로그램과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폭력노출아동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의 비교

구분	아내구타노출아동의 적응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양혜원, 2002)	가정폭력노출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향상 집단프로그램
개발원리	문헌, 예비조사, 외국의 기존의 쉼터프로그램인 Alessi와 Hearn, DAP, CAS프로그램을 참조	문헌, 예비조사, 양혜원(2002)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자기성장 집단상담과 외상의 집단 심리치료 접근 적용
목적	전반적 적응향상	자아존중감, 내재화문제, 외현화문제 완화
대상	초등 1-3학년	초등 1-6학년
진행자	주진행자 1명, 보조진행자 1명	주진행자 1명, 보조진행자 1명
운영기간	주1-3회, 8회기 (3-4주)	주2회, 12회기 (6주)
치료전략	정서적, 행동적, 교육적 접근	정서적, 놀이집단상담, 심리 치료적 접근
개입자료	외국의 비디오와 책을 번역하여 사용	국내동화와 한국 심리치료학회의 자료 사용
요구분석	어머니와 아동의 요구분석 하지 않음	어머니와 아동의 요구분석 (요구분석 내용을 프로그램에 적용)
세부내용	1-2회기 서로 소개하고 기분 느끼기	서로 소개하고 기분 느끼기
	3회기 가족이야기	자기이해
	4회기 가정폭력	가족이야기
	5회기 도움요청 교육	폭력에 대한 생각표현
	6회기 분노감정 다루기	가정폭력경험 노출1
	7회기 당당한 행동 교육	가정폭력경험 노출2
	8회기 종결	자신의 자원 찾기
	9회기	소중한 자신을 지키기
	10회기	다양한 모습의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
	11회기	세상의 주인공임을 인식
	12회기	종결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구성과 관련하여, 집단원간 유대와 지지 경험, 상담자와의 긍정적 애착형성과 지지경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가정폭력경험 개방 등의 정신작업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자기 인식과 건강한 집단 유대 관계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Fonagy, 1991) 프

로그램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총 12 회기의 프로그램으로 4단계로 나누어 초기의 도입과 준비단계에서는 정서능력 향상을 위한 기분 나누기, 자신과 가족에 대해 나누기, 폭력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작업단계에서는 폭력경험의 개방과 이에 대한 공감 및 집단구성원의 지지, 행복한

표 4. 가정폭력노출아동을 위한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의 개요

단계	회기	제목	목표	활동계획
도입 단계	1	서로 소개하기	오리엔테이션 안전한 집단분위기 효과적 진행기반	프로그램 소개 긍정적 자기소개 앞으로 약속, 전신그림 만들기
	2	기분을 느끼고 나누기	정서능력함양 (정서인식과 표현)	기분표현 단어말하기 서로 의지하고 받아주기 마주 서서 함께 앉고 일어서기
준비 단계	3	자신 이야기	정서능력함양 자기이해 및 수용받기, 지지받기	기분 이야기하기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기 플라쥬 작업 후 자신의 꿈 나누기
	4	가족 이야기	가족 문제 이해 공감 및 지지받기 지지하기	기분 이야기하기 서로 공감하고 지지하기 가족을 찰흙으로 표현 후 소개하기
	5	동화 듣고 생각나누기	폭력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기	기분 이야기하기 공감하고 지지하기 동화(몽실이 배불리기)를 듣고 폭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작업 단계	6	동화 듣고 내 이야기하기	폭력경험 노출 공감과 지지 경험	기분 이야기하기 공감하고 지지하기 동화(친절을 미워한 헤이티)를 듣고 폭력경험 노출
	7	속이 부글부글	폭력경험 노출 공감과 지지 경험	기분 이야기하기 공감하고 지지하기 분노감정 공으로 만들어 던지기, 폭력경험 노출
	8	특별한 보물 상자	자신의 자원 찾기 행복했던 기억 찾기	기분 이야기하기 공감하고 지지하기 '보물상자'를 나눠주고 자신의 자원 찾기
	9	나는 소중해	폭력경험이 주는 낮은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기분 이야기하기 공감하고 지지하기 '쓰레기 그림'의 자료를 나눠주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10	당당한 나	다양한 자신을 이해하여 자신감, 유능감 경험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샌드위치 만들기, 다양한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기
정리 단계	11	내가 주인공	미래의 꿈을 집단원들과 나누어 자신감향상, 자아존중감 향상	기분 이야기하기 공감하고 지지하기 점토로 미래의 주인공 만들고 인터뷰하기, 서로 지지하기
	12	우리함께	프로그램을 끝낸 성취감, 성공경험 지지	집단참여 소감 나누기 수료식

기억을 통한 자신의 자원 찾기, 폭력으로 받은 상처 등 부정적인 것들을 쓰레기통에 비우기, 자신의 유능감 경험으로 구성하였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는 미래 꿈을 통한 자아존중감 높이기와 성취감을 확인하는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개요는 표 4와 같다.

4. 측정도구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척도를 번안하여 한국적 특성에 맞게 수정한 연진영(1992), 김은미(1996)의 척도를 원지영(1999)이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빈도에 따라 '전혀 없다'에 1점, '1년에 1~2번'에 2점, '1달에 1~2번'에 3점, '1주일에 1~2번'에 4점, '거의 매일'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학대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분석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다.

부모 간 폭력목격 경험

부모 간 폭력목격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y-McCoy와 Sugarman(1996)이 개발한 CTS2(Conflict Tactics Scale2)를 장덕희(2001)가 한국적 특성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빈도에 따라 '전혀 없다'에 1점, '1년에 1~2번'에 2점, '1달에 1~2번'에 3점, '1주일에 1~2번'에 4점, '거의 매일'에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간 폭력 목격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00

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분석했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는 .93이다.

아동의 내재/외현화 문제

아동의 내재/외현화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Achenbach와 Edelbrock(1991)이 개발한 CBCL 6-18을 오경자, 이해런, 홍강의, 하은혜(1997)가 한국적 특성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3점 Likert 척도로 빈도에 따라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에 0점, '가끔 그렇거나 그런 편이다'에 1점,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에 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Achenbach와 Edelbrock (1991)의 분류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인 9개의 하위척도 중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증상을 하위척도로 하는 내재화문제 32문항과 규칙위반, 공격행동을 하위척도로 하는 외현화 문제 35문항을 사용했다.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했을 때 수치가 너무 낮아 다른 척도와 비교가 어려워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여 2점을 만점으로 분석했다. 내재화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이며, 외현화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68이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Coopersmith(1967)의 SEI(Self-Esteem Inventory)를 신철(199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5점 Likert 척도로 총체적 자아존중감 6문항, 사회적 자아존중감 9문항, 가정적 자아존중감 9문항, 학교 자아존중감 8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체적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전반적 자아상을 말하며 내적 모습으로서 자신이 어떤 특성을 어느

정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이다. 사회적 자아존중감은 동료 및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가정적 자아존중감은 아동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가정의 상태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태도를 말한다. 학교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인지적인 능력에 대하여 갖는 자아상이다. 100만점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총체적 자아존중감 신뢰도 Cronbach's α 는 .75, 사회적 자아존중감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 가정적 자아존중감 신뢰도 Cronbach's α 는 .70, 학교 자아존중감 신뢰도 Cronbach's α 는 .69이며 전체 자아존중감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이다.

개별아동에 대한 회기별 관찰평가지

개별아동에 대한 회기별 관찰평가를 위해서 참여도, 긍정적 상호작용, 욕설이나 밀기 때리기 등의 공격행동, 특징적 행동에 관한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된 관찰평가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사후 질문지

어머니에게 프로그램 참여 후 아동에 대한 변화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분석하고 아동에

게는 프로그램 참여 후 자신과 친구들에 대한 변화를 개방형 질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5. 자료분석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집단에 대한 양적 분석과 개인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례수가 7명이기 때문에 양적분석에서는 비모수검정인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인사례에 대한 질적 분석은 연구 참여자들이 회기별로 작성한 평가기록을 분석하고 참여자의 소감, 어머니의 사후 질문지 및 친구들의 피드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 관찰자이며 보조자로 참여한 사회복지사와 연구자의 관찰평가지의 평가기록을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 분석

이 연구에서는 처치 이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활용하여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5. 폭력경험정도와 부모 간 폭력목격 경험정도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항목	집단(N)	순위평균	U	Z	p
자신의 폭력경험	실험(7)	6.93	20.500	-.514	.620
	통제(7)	8.07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실험(7)	7.14	22.000	-.319	.805
	통제(7)	7.86			

표 5에서와 같이 자신의 폭력경험과 부모 간 폭력목격경험의 사전검사 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 = -.514, p > .05$; $Z = -.319, p > .05$).

또한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의 사전검사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 = -.970, p > .05$; $Z = -.448, p > .05$; $Z = -.322, p > .05$; $Z = -.259, p > .05$). 반면

학교 자아존중감의 경우, 사전검사점수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15.500, p < .05$).

한편 표 7과 같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의 사전검사점수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Z = -.523, p > .05$; $Z = -.647, p > .05$).

이러한 결과는 처치 이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자신의 폭력경험, 부모 간 폭력목격 경험,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 내재화

표 6. 자아존중감 4영역 및 전체 자아존중감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동질성 검정

항목	집단(N)	순위평균	U	Z
총체적 자아존중감	실험(7)	6.43	17.000	-.970
	통제(7)	8.57		
사회적 자아존중감	실험(7)	7.00	21.000	-.448
	통제(7)	8.00		
가정적 자아존중감	실험(7)	7.14	22.000	-.322
	통제(7)	7.86		
학교 자아존중감	실험(7)	5.07	7.500	-15.500*
	통제(7)	9.93		
전체 자아존중감	실험(7)	6.21	.026	-.259
	통제(7)	8.79		

* $p < .05$

표 7.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정

항목	집단(N)	순위평균	U	Z	p
내재화	실험(7)	6.93	20.500	-.523	.620
	통제(7)	8.07			
외현화	실험(7)	6.79	19.500	-.647	.535
	통제(7)	8.21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는 동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학교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처치 이전의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동질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가정폭력노출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4가지 하위 영역 및 전체 자아존중감 점수의 사전·사후 검사 간 변화점수가 실험·통제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점수의 차이에 대해 Mann-Whitney U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8에서와 같이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 점수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Z = -3.111, p < .01; Z =$

$-3.155, p < .01; Z = -3.148, p < .01; Z = -3.134, p < .01$). 반면 학교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Z = -.578, p > .01$). 이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 전체 자아존중감 점수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지만, 학교 자아존중감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음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가정폭력노출아동의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의 사전·사후 간 변화점수가 실험·통제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표 9에서와 같이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 = -2.949,$

표 8. 자아존중감 변화점수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 간 차이 비교

종속변수	집단(N)	사후검사		사후검사-사전검사				
		중앙값	사분편차	중앙값	사분편차	순위평균	U	Z
총체적 자아존중감	실험(7)	66.67	8.33	20.83	12.50	10.93	.500	-3.111**
	통제(7)	45.83	10.42	0.00	2.08	4.07		
사회적 자아존중감	실험(7)	69.44	11.11	25.00	5.56	11.00	.000	-3.155**
	통제(7)	44.44	4.17	0.00	5.56	4.00		
가정적 자아존중감	실험(7)	58.33	13.89	22.22	11.11	11.00	.000	-3.148**
	통제(7)	41.67	6.94	0.00	2.78	4.00		
학교 자아존중감	실험(7)	31.25	10.94	3.13	7.81	8.14	20.000	-.578
	통제(7)	37.50	10.94	6.25	7.81	6.86		
전체 자아존중감	실험(7)	56.25	4.30	16.41	3.91	11.00	.000	-3.134**
	통제(7)	42.19	5.86	-0.78	2.34	4.00		

** $p < .01$

표 9.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 변화점수에 대한 실험·통제 집단 간 차이 비교

종속변수	집단(M)	사후검사		사후검사-사전검사				
		중앙값	사분편차	중앙값	사분편차	순위평균	U	Z
내재화	실험(7)	0.16	0.03	-1.23	0.10	4.21	1.500	-2.949**
	통제(7)	0.58	0.19	-0.81	0.13	10.79		
외현화	실험(7)	0.20	0.10	-1.06	0.07	4.79	5.500	-2.455*
	통제(7)	0.37	0.09	-0.94	0.03	10.21		

* $p < .05$. ** $p < .01$.

$p < .01$; $Z = -2.455$, $p < .05$).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가정폭력노출 아동의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사례별 변화과정

개별아동에 대한 연구자의 관찰평가지와 연구 참여자들이 회기별로 작성한 평가기록을 통한 아동들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7명의 참여아동들은 프로그램 시작 초기에는 학년이 가장 높은 사례C(초등6, 남)를 제외하고는 수줍어하거나 자신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었다. 회기가 지나면서 아동들은 감정표현을 더 많이 하였으며, 사례C가 모델이 되기도 했다. 또한 3회기의 풀라쥬 작업은 모든 아동이 집중하는 모습과 흥미를 보여 좋은 개입도구가 되었다. 아동들에게 ‘가정폭력경험 노출’을 한 후 무엇을 느꼈는지 질문했을 때 “마음이 가벼워 지는 것 같았어요”(사례B), “꿈속에 아빠가 나왔는데 때리지 않았어요”(사례B), “마음속의 뭔가가 빠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사례C) 등으로 답변하였다. 한편 아동들이 표현한 분노감정을 보면 “아빠가 엄마

를 때리는 것을 봤어요, 너무 슬펐어요”(사례B), “그럴 때 화나요”(사례B), “죽이고 싶었어요”(사례C) 등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을 통해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후 질문에서는 “B가 성격이 좋아졌어요”, “G가 요즘 울지 않아서 같이 지내기 좋아요”, “A형이 때리지 않아요” 등으로 답변했다. 행복했던 시간에 대한 아동들의 기억은 ‘엄마와 놀기’가 대부분이었다. 자신을 기쁘게 했던 따뜻한 말에 대해서는 ‘그림을 잘 그리는 구나’, ‘축구를 잘 하는 구나’ 등의 선생님이나 어머니의 칭찬이 많았다. 속상했던 일들은 ‘모르고 한 일을 뭐라고 혼낼 때’, ‘잘못한 게 없는데 혼낼 때’, ‘바보야’, ‘동생보다 못하다’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동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표현에 능동적이 되며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는 결과를 보였다. 참여아동 7명 중에서 자아존중감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례B(초등5, 남)와 내재화문제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사례G(초등2, 여)의 회기별 변화과정과 자아존중감 중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학교 자아존중감의 사례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상담자와 집단의 공감과 지지의 긍정적 효과를 보인 사례: 사례B(초등5, 남)

사례 B는 프로그램 도입부에서는 상담자와 시선을 맞추지 않고 아기처럼 바닥에 누는 행동을 보이며 자신감 없이 작은 소리로 자기소개를 거의 하지 못하였다(1, 2회기). 풀라쥬 작업에서 프로그램에 흥미를 보이며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고(3회기) 풀라쥬 작업을 하는 동안 상담자와 집단의 지지를 받으면서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목소리에도 힘이 생기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4회기). 가정폭력 사건의 대상인 아버지에게 대한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어머니를 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였다(5회기). 아버지가 자신에게 한 폭력행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며 울먹이고(6회기) 다른 아동이 폭력 경험을 노출할 때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7회기). 상담자를 잘 따르게 되고 집단원들을 돕고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얼굴표정이 밝아졌다(8, 9회기). 자신의 미래모습인 아나운서 또는 기자의 모습에 자신감을 보였다(10, 11, 12회기). 사후 평가에서 어머니는 이 아동이 ‘화가 나거나 답답하면 물건을 던지거나 엄마나 동생을 때렸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평가를 했다.

집단에서의 모방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 사례G(초등2, 여)

사례G는 프로그램 도입부에서는 상담자의 눈치를 살피며 떨면서 무서워하였고 집단의 사소한 말에 울어버리고 말을 하지 않았다(1

회기). 여전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집단원인 6학년 언니 옆에서 무조건 따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풀라쥬 작업에서도 집단원인 6학년 언니가 하는 대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2, 3회기). 집단원들의 행동을 유심히 쳐다보는 모습을 주로 보이며 집단원의 폭력경험 개방에 처음으로 ‘자신은 아빠에게 맞지 않았다’며 말을 시작하였다(4회기). 집단원들이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면 이 아동도 자신이 생각하는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무섭다’는 말을 자주 하였다(5, 6회기). 움직임이 없던 모습에서 공 던지기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고 웃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7회기). 앞으로 나가서 발표하는 작업을 처음 참여하게 되고, 눈치를 보는 모습이 없어지고 자신감 있게 말하기 시작하였다(8회기). 얼굴은 밝아지고 ‘무섭다’는 말은 계속 하였다(9회기). 집단원이 엄마를 위해 샌드위치 챙기는 모습을 모방하고 계빵사가 되고 싶은 자신의 미래모습에 자신감을 보였다(10, 11, 12회기). 사후 어머니 평가에서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가 자주 울고 토하던 것이 없어지고 소극적이던 모습에서 전반적으로 밝아졌다’는 평가를 했다.

학교 자아존중감에 대한 사례분석결과

이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 영역 중에서 학교 자아존중감에서만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들을 추가 분석한 결과, 흥미로운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학교 자아존중감의 유의미하지 않은 변화에 대한 개별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는 실험집단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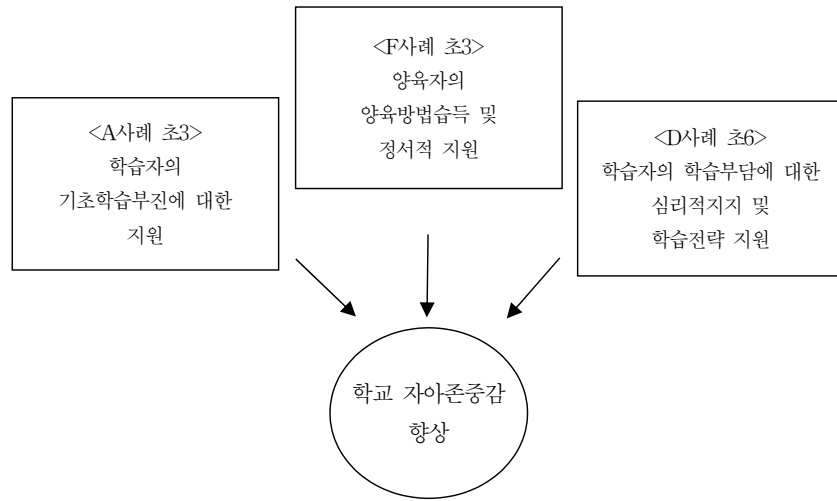


그림 1. 개별사례분석을 통한 추후 요구되는 개별지원요인: 학교 자아존중감의 경우

명의 아동 중에서 사례G와 C가 큰 폭으로 향상되었으며 사례B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사례A, F의 경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고 사례D의 경우는 학교 자아존중감이 오히려 더 낮아졌다. 개별상담 결과 사례F의 경우는 어머니의 양육방법 지원, 사례D는 자신없어하는 과목에 대한 개별지도, 사례A는 학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조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 자아존중감은 다른 영역의 자아존중감과 다르게 '학교성적'이나 '학교생활 적응'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지도와 부모의 양육방식(감독, 방임, 애정 등)에 대한 개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노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자아존중감 향상, 내재화 문제 및 외현화 문제의 완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양적분석과 개별사례연구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양적분석에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이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정폭력노출아동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교육적, 치료적 개입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전체 자아존중감 하위척도 중에서 학교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총체적 자아존중감, 사회적 자아존중감, 가정적 자아존중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학교 자아존중감은 약간의 향상은 있었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개별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험집단 7명 중에서 사례A(초등3, 여)와 사례F(초등3, 남)는 학교 자아존중감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례D(초등6, 여)는 점수가 더 낮아졌다. 사례A는 기초학습

부진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사례F는 어머니의 양육방법 지원이 필요했고, 사례D는 영어 과목에 자신 없어 하였다. 이들의 전체자아존중감은 향상되었지만 학교 자아존중감은 변화가 없어서 학교 자아존중감에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른 조력이 개별적으로 개입되어야 할 것으로 시사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에서는 전체 자아존중감, 내재화문제 및 외현화 문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아존중감은 학교 자아존중감을 제외하고 약간의 감소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노출아동에게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증상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Hughes, 1982)를 뒷받침한다.

프로그램의 개입단계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하였던 집단원간 유대와 지지 경험, 상담자와의 애착과 지지경험, 정서인식과 정서표현, 가정폭력경험 개방 등의 정신작업이 자기인식과 건강한 집단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자아존중감의 향상이 이루어졌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청소년들 중 다른 성인의 지지, 가족지지, 또래지지가 높을수록 사회적 탄력성이 높아져 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킨다는 선행 연구결과(이상준, 2006; Hughes & Luke, 1998)와 일치한다. 또한 자기인식 또는 자기감정의 인식과 표현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Fonagy & Target, 1997)와도 일관된 결과이다. 프로그램 구성에서 아동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하여 몸을 사용하는 내용으로 '서로 의지하고 받아주기'나 '마주서서 함께 앉고 일어서기'는 아동들에

게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진행상황을 보면 모든 아동들이 풀라쥬 작업에서 많은 흥미와 집중을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으로 '샌드위치 만들기'에 아동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아동들의 요구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면서 아동들의 발달특성을 고려하고 요구분석 결과를 반영한 것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교시기에 가정폭력노출을 경험한 아동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없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이 연구에서 가정폭력노출아동들이 그들이 경험했던 외상의 경험을 안정적인 집단 내에서 개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집단프로그램의 특성인 집단의 리더인 연구자와 라포 형성이 잘 되었고 공감과 지지에 민감했던 아동이 공감과 지지를 받으며 가정폭력에 대한 경험을 먼저 개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집단역동을 따라 다른 아동들도 자연스럽게 가정폭력노출경험을 이야기 했고 구성원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집단프로그램의 효과성(Yalom, 1970)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가정폭력경험노출의 치료적 효과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분위기의 형성, 그것을 위한 집단리더의 민감성과 자질이 중요하다는 점(Allen, 2010)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정폭력노출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의 핵심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구성에서 서로 다른 지역의 쉼터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무선표집과 무선 할당을 전제하는 연구 설계에 비해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쉼터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통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보다 정확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을 통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집단의 규모가 작아 결과해석 및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쉼터의 특성상 한 쉼터에서 많은 인원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쉼터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보다 많은 실험집단을 확보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자가 집단진행을 수행하여 연구자의 기대가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배제하지 못하였다. 다른 진행자의 개입을 통한 비교 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이 연구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입하여 효과성을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때 개입경험이 있었던 학생과 개입의 경험이 없는 중, 고등학생 대상의 중단적 비교연구를 통해 조기개입의 효과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은미 (1996).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엽, 송아영, 한 샘 (2010). 청소년 자녀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과 자녀학대 피해경험 중복피해에 따른 우울 및 폭력비행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12), 1-26.
- 김재엽, 조학래, 양혜원 (2003).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의 문제와 개입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5(11), 27-54.
- 김재철, 최지영 (2011). 부모학대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0(1), 19-32.
- 김향미 (2001). 놀이중심의 인지적 행동수정 훈련이 아동의 공격성, 분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모, 이숙진, 서해정, 최은정, 김은정, 문순희 (2007). 가정폭력 노출이 청소년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8(1), 53-77.
- 김효진 (2004). 초등학교의 가정폭력노출과 또래폭력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형원 (2003). 가정폭력 노출아동의 공격행동 감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민섭, 오경자, 홍강자, 김혜숙 (2004). 가정폭력이 배우자 및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23(3), 611-636.
- 신철 (1997). 초등학교 아동의 진로 인식과 자아개념과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혜섭 (2000).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16(1), 67-84.
- 양숙경, 문혁준 (2012). 가족기능 또래 애착이

-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일반 자녀와 직업군인 자녀를 중심으로-. *인간 발달연구*, 19(2), 115-130.
- 양혜원 (2002). 아내구타 노출아동의 적응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개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양혜원, 전명희 (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 사회복지연구*, 6(7), 127-152.
- 연진영 (1992). 아동학대 실태와 관련변인. *가정문화연구*, 9(0), 93-122.
- 오경자, 이해련, 홍강의, 하은혜 (1997). K-CBCL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오경준 (2000).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존중감 및 사회성증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지영 (1999). 부부갈등이 아동학대와 아동의 정서적 부적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덕인, 정태진 (1997). *신 미술교육*. 서울: 교학사.
- 유채은 (2008). 가정폭력 노출 아동의 적응향상을 위한 자기성장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증. *교류분석과 심리사회치료 연구*, 5(1), 1-26.
- 이상준 (2006). 청소년의 가정폭력노출이 사회적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환경적 보호요인의 역할. *한국사회복지학회지*, 58(2), 331-353.
- 이은선 (2001).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아동의 자기 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대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형득 (1998). 자기성장 집단상담의 단계별 발달과정. *한국집단상담학회지*, 1, 35-61.
- 이형득, 김성희, 설기문, 김창대, 김정희 (2002). *집단상담*.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희백 (2014). 공포감정을 핵심감정으로 가진 사람들의 특성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교육치료연구*, 6(2), 193-211.
- 장덕희 (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규혁 (1999). 자아개념 증진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 존중감 및 학습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승배 (2000). 자기성장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 존중감 및 학습태도 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숙 (1999). 아내구타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 관련변인 탐색을 위한 사회사업적 접근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성훈, 김희수 (2005). 아동이 지각한 가정폭력 수준과 불안 및 사회적응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5(1), 75-87.
- Achenbach, T. M., & Edelbrock, C.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University of Vermont.
- Alessi, J. J., & Hearn, K. (1984). *Group treatment of children in shelters for battered women, in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edited by A.

- R. Roberts. New York: Springer, 46-91.
- Allen, J. G. (2010). 트라우마의 치유. 권정혜, 김정범, 조용래, 최윤경, 권호인(역). 서울: 학지사. (원본발간일, 2005).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W. H. Freeman.
- Dodge, A. K.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1, 162-170.
- Fonagy, P. (1991). Thinking about thinking: Some clinical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in the treatment of a borderline patien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72, 639-656.
- Fonagy, P., & Target, M. (1997). Attachment and reflective function; Their role in self-organ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 679-700.
- Grusznski, R. L., Brink, J. C., & Edleson, J. L. (1988). Support and education groups for children of battered women. *Child Welfare*, 5, 431-444.
- Harter, S. (1990). Self and identity development. In S. S. Feldman & G. R. Elliot (Eds.),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ughes, H. M. (1982). Brief intervention with children in a battered women's shelter; A model preventive program. *Family Relations*, 31, 495-502.
- Hughes, H. M. (1988). Psychological & behavioral correlates of family violence in child witness & victim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18, 77-90.
- Hughes, H. M., & Luke, D. A. (1998). Heterogeneity in adjustment among children of battered women. In G. W. Holden, R. Geffner, & E. N. Jouriles (Eds.), *Children exposed to marital violence: Theory, research, and applied issues* (pp. 185-221).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Jaffe, P. G., Wolfe, D. A., & Wilson, S. K. (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Newbury Park, CA: Sage.
- Kaukinen, C. (2004). Status compatibility, psychical violence, and emotional abus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2), 452-471.
- Mallah, K. (1997).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the context of family violenc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Denver.
- O'Keefe, M. (1998). Factors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erson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Family Violence*, 13(1), 39-57.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Harper & Row.
- Santrock, J. W. (2007). 아동발달심리학. 광금주, 정윤경, 김민화, 박성혜, 송주현(역). 서울: 박학사. (원본발간일, 2005).
- Sternberg, K. J., Lamb, M. E., Guterman, E., & Abbott, C. B. (2006). Effects of early and later family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A longitudinal, multi-informant perspective. *Child Abuse & Neglect: The International Journal*, 30(3), 283-306.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1), 75-88.
- Straus, M. A., Hamby, S. H.,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 sca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Wagar, J. W., & Rodway, M. R. (1995). An evaluation of a group treatment approach for children who have witnessed wife abus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95-306.
- Wilson, S. K., Camaron, S., Jaffe, P., & Wolfe, D. (1989). Children exposed to wife abuse: An intervention model. *Social Casework*, 70(3), 180-184.
- Yalom, I. D. (1970).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1차원고접수 : 2016. 07. 10.
수정원고접수 : 2016. 08. 16.
최종게재결정 : 2016. 09. 02.

The Effect of the Group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of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on Self-esteem, and the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

Park, Jiehyun

Dept. of Counseling Hannam University

Choi, Jiyoung

Dept. of Education Han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group program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alleviating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s of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is program. In the documentary study, self-esteem was confirmed a very important psychological trait. The program developed by Hye Won Yang(2002)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which is the programs of DAP(Domestic Abuse Project of Minneapolis) and CAS(Children's Aid Society of London and Middlesex) and the combined intervention program of Alessi and Hearn under the basic frame of self-growth group counseling and traumatic approach of a group psychological treatment program. The subjects of research consisted of a total of 14 elementary schoolchildren living at the women's shelter. Seven elementary schoolchildren(3 males, 4 females) were arranged into the experimental group and 7 elementary schoolchildren(3 males, 4 females) were organized into a control group. The program was conducted with pre-post control group desig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a Mann-Whitney U test. As a resul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significant change in self-esteem, and the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s. In contrast,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when it came to self-esteem, and the internalization and externalization problems. As for qualitative analysis of individual cases, there were analyzed through a combination of assessment records for session that participants made, and through post-study questionnaires completed by the mothers of the children and assessment records of researchers and assistan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ovided information about the core factors of a self-esteem improvement group program for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Keywords: children exposed to family violence, self-esteem, group counseling program, internalization problem, externalization problem